

들어가면서

1. 흔히 족장들(patriarchs)을 말할 때, “아브라함, 이삭, 야곱과 12 아들”을 지칭.
 - 그 중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 이야기에 속함. 이삭의 족보와 함께 야곱 이야기 시작(창 25:19-34)
 - 요셉(창세기 37-50 장) 이야기 역시, 야곱 이야기에 속해 있다.
 - 궁궐 이후 양식비평(Form Criticism)에서는 족장들 이야기를 Saga/Legend, Novella 등으로 구분. 보통 history 와의 차이는 그 글 속에 플롯(plot)이 있는가에 있다. 족장들 이야기는 어떤 플롯 하에 구성.
2. 야곱, 요셉 이야기의 문학적 구성은 분쟁, 화해=> 우리들 이야기
 - 신의 등장이 빈번치 않다. 야곱은 기도하고 하느님은 응답하지만(창 25:21-22), 아브라함 경우와는 달리 야곱 이야기에서는, 인간이 이니셔티브(initiative)를 취함. 비교. 창 12:1-3 (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); 창 27:29 (이삭이 야곱에게)
 - 요셉 이야기의 시작(37:2)은 야곱의 족보(Heb., *toledot*, genealogy)로 부터
 - ⇒ 유다/다말 (38 장), 디나(34 장) 역시 야곱 후손들 이야기
 - ⇒ 12 지파 모두 언급(49 장)
 - ⇒ 이삭의 유언에 따르면, 요셉이 아닌, 유다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열쇠 (49:8-10)
 - ⇒ “bow down” (창 49:8 =< 창 27:29),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쓴 말을, 야곱이 유다에게 전함; 또한 창 37:10. 이렇게 똑같은 단어[מָרַד]가 3 개 나오지만, 전체 구조에서 이삭, 야곱, 유다로 전해짐.

A. 야곱 이야기

1. 구조: 분쟁과 화해/해소.
 - ◆ 야곱/에서: 분쟁 (창 25-28 장)
 - 야곱/라반: 분쟁
 - 야곱/라반: 화해/해소
 - ◆ 야곱/에서: 화해/해소 (창 32-33 장)
2. 목적: 이스라엘의 정체성 확립
 - 초점은 현/당시 이스라엘(야곱) 이야기. 이웃 국가/민족간의 갈등, 관계 설정
 - ⇒ 암몬, 모압(룻, 19:30-38); 아람(나홀, 22:21), 아랍(이스마엘, 창 21 장), Keturah(창 25 장, “미디안”=> 출 2-3 장, 모세와 관계); 에돔(에서)
 - ⇒ 쌍둥이 이야기의 정체는? 두 개의 다른 민족(창 25:27-28). 정체성 확립.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?
 - 에서가 장자권을 상실하는 과정. 처음에는 이삭의 숙임수에 걸리지만, 나중에는 이방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스스로 확인
 - 문화/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에게서 영향을 받았음을 암시 (삿 5:4; cf. <http://www.newworldencyclopedia.org/entry/Edom>)
 - 야곱 vs. 아브라함
 - ⇒ 아브라함은 주로 남쪽 지방(Beersheba, Hebron, Mamre)에 거주
 - ⇒ 야곱은 북부(Bethel, Peniel, Shechem)에 거주. 이스라엘로 명명, 12 지파의 조상
 -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 분쟁과 갈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.
 - ⇒ 아브라함 이야기에서와는 달리(창세기 12-21 장), 야곱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.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예.
 - ⇒ 분쟁의 해결/해소 역시 더 이상 신과 인간의 언약이 아닌, 인간들 간의 계약.
 - 야곱이 하느님을 시험: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야훼가 자신의 하느님이 될 것임(창 28:21). cf. 아브라함 이야기 (창세기 12-21 장)
 -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(יִשְׂרָאֵל), “God strives” or “one who strives with God” =< “네가 하느님과 사람과 겨루었다/견디어 냈다” (창 32:28)

B. 요셉 이야기

1. 주제: 지혜/통치인가 신이 섭리인가?

- 요셉이야기는 지혜전승의 영향(cf. 창 44:5, 15). 요셉은 아브라함, 야곱처럼 따로 족장의 대우라기 보다는, 더 큰 구조(framework)안에서 부분적 역할. (Saga vs. novella)
- 창 48-50 장의 야곱/요셉 <= 창 27 장. 야곱의 출생과 죽음의 틀 안에서. 반면, 요셉의 죽음은 약력.
- 유대 12 지파 중에서 요셉의 역할에 대한 설명=>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 지파에 소속. 므낫세(41:51)와 에브라임(41:52)을 낳는데, 이 둘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두 지파다. 창세기 48 장은 왜 이 둘의 신분상승에 차이가 있는지 설명 (팔을 엇바꾸어 축복)
- 가족 간의 갈등. 아브라함(이스마엘과 이삭), 이삭(에서와 야곱), 야곱(12 아들)=> 보다 심각한 갈등.
 - ⇒ 누가 이기나(통치)? => 내용은 요셉이지만, 실이익은 유다가 챙긴다. 후대 역사가의 변(辯), “유다가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.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,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(49:8; cf.)”
 - ⇒ 야곱은 요셉을 총애(37:3, 라헬의 아들 30:22-24),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(37:4); 요셉은 고자질, 자기 자랑—자뻑(37:2, 5-10).
 - ⇒ 그러나, 현실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신의 섭리를 읽어냄(창 45:7-8; 50:19-20). 그것이 지혜라면 지혜. 지혜의 시작(תְּחִלָּתָהּ)은 하느님을 두려워 함(잠 1:7).

2. 축복/언약 & 현실(Life in Exile)

- 형식. 창 12:1-3(아브라함); 창 26:2-4(야곱); 46:1-4(야곱)
- 내용: 땅과 자손. 창 13:14-17 (아브라함)=> 창 28:13-14 (야곱); 창 35:11-12(자손과 땅. 순서가 바뀜)
 - ⇒ 땅(Land)과 자손(progeny)이 약속의 두 축. 그런데, 이스라엘에게 땅이 없다. 어떻게 살아야 하나?
 - ⇒ 포로기 시대에서 지혜문서와의 관계. 도를 지나쳐 자기 자랑을 할 때(e.g., 꿈 이야기)는 요셉은 목숨을 잃을 위험에 빠지지만,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앞날을 미리 계획할 때, 열린 미래가 있다. => 삶의 본보기 (다니엘, 에스더)
- 약속/축복 다시 이해하기. 무조건에서 조건부로. 하느님 책임에서 내/우리 책임으로
 - ⇒ 창 15:16: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음
 - ⇒ 창 17:1 “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” (=> 할례, 사라에서 사래로, 이삭과 언약)
 - ⇒ 기억할 것은, 하느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/축복은 개인과의 약속이 아닌 공동체(이스라엘, 교회)와의 약속이다. 개인은 가족/공동체 안에서 그 의미가 있다.

결론

- 야곱과 요셉이야기는 분쟁, 화합이라는 보다 실질적인 인간들 이야기 =>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
- “Extended” Family: 교회 문제, 신앙인들 문제.
- 형보다 아우가 잘 될 때, 문제 발단. (이스마엘/이삭; 에서/이삭; 요셉형들/요셉; 므낫세/에브라임)
- 땅과 자손의 약속으로 시작된 아브라함 이야기는 자손의 문제로. (결국 남는 것, 의존할 곳은 식구)
- 모두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
 - ⇒ 르우벤은 자신의 자식을 걸고(42:37)
 - ⇒ 유다는 책임을 자처하고(43:9; 44:33)
 - ⇒ 아비 야곱은 막내 베냐민의 위험을 감수, “잃게 되면, 잃으리라”(43:14)
 - ⇒ 요셉의 말: 한 개인의 축복이 아닌 모두를 위한 길=> 창 45:5-8

생각해 보기

1. 하느님의 섭리(providence)에 대해서. 누가 하는/할 수 있는 말인가?
“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” (창 50:20)
2. 가족(and 교회)은 하느님의 약속을 담은 그릇이다.